## 2023 수능 특강 영어 21강 - 1 - 영작 [5 차]

	개개인의 과학자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동기로 추진력을 얻는다.
2	연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확함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견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3	놀랍게도 화학자 개인의 오류와 편견은 화학의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화학자인 전 세계 50만 명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활동인 과학으로서의 화학은 화학자 개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진보한다.
5	그 과학[즉 화학]은 자기 수정적인 특성을 풍부하게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나 이론이 더 흥미로울수록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점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6	이는 흔히 최초의 관찰은 분명히 틀렸다는 확신으로부터 생기는 단순한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전적으로 '엉뚱한' 이유에서 그러하다.
7	어떤 화학자 개인이 중요한 합성(과정)을 반복하거나 대체이론을 시도하는 이유는 별 상관이 없다.
8	화학은 진보한다.



### 2023 수능 특강 영어 21강 - 2 - 영작 [5 차]

1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유전자로 정의된 '인간 본성'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데 덜 열정적이다.
2	사실,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전체가 점점 더 가짜처럼 보인다.
3	어색한 가족 모임은 견디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함께 양육되고 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유전자도 환경도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일은 잘하지 못한다.
5	이 중 어느 요인도 (단독으로든 혹은 조합을 이루어서든 간에)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드는 도전이 다른 아이에게는 평생 상
	처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6	무작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다른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행운이라 부르든 '운명'이라 부르든,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	우리는 소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들 영문이다 우드는 문항이다 우드는, 이번 월들는 그정 월이건나는 점을 받아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
8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향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023 수능 특강 영어 21강 - 2 - 영작 [5 차]

9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짜인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다.
10 우리는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 곧 매우 다른 동물이 되었다.



# 2023 수능 특강 영어 21강 - 3 - 영작 [5 차]

1	화석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암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몇 종의 화석 생물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지질학 기록의 중요한 표지를 형성한다.
۷	文 이러 되고 이글는 세계리 많은 사고에서 글만을 수 있고, 딱다시 사고고 거고의 이끄런 교사를 이어한다.
3	상대적 시간은 암석 기록에 나타난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구역들로, 예컨대 많은 종들이 더 나중에 생성된 암석에서는 그 화석
	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들로 나뉘었다.
4	이것이, 예컨대 공룡의 멸종이 바로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에 있는 이유인데, 그 경계선은 공룡의 멸종을 표시하기 위해 설정
	되었다.
5	지질학적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은 대에서 시작하여 기로, 또 세로의 작은 구역 등으로 더 구분되었다.
6	수 세기 동안 과학계에서 이러한 지질학적 구역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논쟁이 맹렬히 계속되었다.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가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장
•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39억 6천만 년 된 것이며,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은 약 6,650만 년 전에 있다.



# 2023 수능 특강 영어 21강 - 4 - 영작 [5 차]

1	많은 생물학자들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참지 못한다.
2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려는 과거의 시도(전통적으로 유기체는 '먹고', '숨 쉬고', '배설하고',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극에 반응하고', '번식한다'라고들 말한다)를 언급하며, 매우 당연하게도, 그런 모든 시도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된 이유는 간단하다.
3	그것들이 글러딘이라고 답하는 이미는 한번에다.
4	먹기'는 가령 오크 나무와 족제비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수반한다.
5	족제비는 오크 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따위이다.
6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만큼 폭넓은 '먹기'와 '움직이기'에 대한 정의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7	그것들은 생물체뿐만 아니라 많은 무생물체에도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아무리 폭넓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쩌
	면 여전히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생물체가 있을 것이다.
8	살아 있음과 살아있지 않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의 추구는 늘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더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냉
	소주의자들은 말한다.

